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설계와 개발절차*

서울기록원의 S-NAP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of Narrative Archiving Policy
: Focused on S-NAP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이경남(Lee, Kyung Nam)** · 이현정(Lee, Hyeon Jung)***

1. 서론
2.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특징 및 설계 방법
 - 1)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특징
 - 2) S-NAP 설계 방법
3.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개발 및 활용
 - 1) S-NAP 구조와 내용
 - 2) S-NAP 작성 예시
 - 3) S-NAP 활용 방안
4. 결론

* 이 연구는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강사(coarchivist@gmail.com)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7월 03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11일

■ 기록학연구 65, 199-226,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199>

〈초록〉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를 위해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수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광역 지역의 기록화를 위한 새로운 수집 방법론으로서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을 개발하여 실행한 서울기록원 사례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 개발을 위해 먼저 광역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수집 주제 영역을 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학 연구 성과 및 사회,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집 실행단위를 설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9개 주제 영역과 61개 상위 수집실행지침, 184개 하위 수집실행지침의 구조와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기록의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둔 기록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과 기록 활동 네트워크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역기록화,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록 수집 전략,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 서사 기반 아카이빙

〈Abstract〉

It is widely agreed that a documentation strategy that considers the social context of fragmented records is needed for documentation of social memories. This paper examined a new methodology named Seoul Narrative Archiving Policy(S-NAP) which was developed for the documentation of social memories in metropolitan areas. Also, the paper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S-NAP through the collection cases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NAP is as follows. First, acquisition topic domains that cover an entire metropolitan region were developed. Next, implementation units(S-NAP) were designed through extensive data analysis that encompasses social, economic, culture, and art areas and reflects outcomes of regional studies. As a result, a total of nine acquisition topic domains, 61 parents S-NAP, and 184 children S-NAP were derived from the

aforementioned methodology and method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the applicability of S-NAP as archival contents and as a supportive tool for archival activity networks.

Keywords : local archives, documentation strategy, records acquisition policy, Seoul narrative archiving policy, narrative archiving

1. 서론

아카이브는 과거나 현재의 기억 가운데 무엇을 미래로 전승할 것인지를 평가·선별하는 사회적 책무는 갖는다. 사회적 기억을 역사로 남기는 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는 평가·선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선별 정책에는 기록화의 대상 범주와 이를 기록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능분류 체계 중심의 평가·선별 정책은 행정기록 중심의 수집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록이 갖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새로운 수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방법론을 토대로 새로운 수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된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의 개념이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에 토대를 둔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는 것을 로컬리티 기록화로 정의하였다. 로컬리티 기록화에서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 조건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로컬리티 기록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설문원(2011)의 연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범위 유형을 구분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아카이브 유형과 운영 체

계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브 포털의 운영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룸으로써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네트워크 방식의 ‘spanDoc 모형 (SPA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Model)’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를 다룬 연구도 있다(설문원, 김정현 2013). 그러나 실제 수집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서 작성 및 실행, 그리고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집 영역의 개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다룬 이 논문의 범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로컬리티 기록화와 더불어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공동체 기억과 역사를 남기는 일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기록관리 기관의 역할을 고민하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맥락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승억(2014)의 연구에서는 보존기록의 평가선별 정책의 측면에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기록화 전략의 필요성과 이 전략적 수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록의 사회적 맥락이 기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록화 전략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기록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정부의 기능 분석에 기반한 거시 평가 정책이 공공 평가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거시 기능 평가가 갖는 업무 기능 중심의 평가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일종의 주제 수집 정책인 실행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y, OSP)을 도입하였다. 폭넓은 주제 영역과 사건을 포괄하며, 다양한 유형과 출처의 기록을 망라하여 수집 지침을 작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 기록의 선별과 수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SP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각각의 OSP는 사회적 맥락에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읽을 수 있도록 배경 정보와 관련 기록의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수집 지침으로서 OPS의 효용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의 기록화를 위한 수집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지침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인 주제수집 정책과 출처 중심의 기능 분류 체계에 따른 수집 실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사적 맥락에 기반을 둔 기록화 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사 기반의 수집 실행 방법론을 새로운 수집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개발한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Seoul Narrative Archiving Policy, 이하 S-NAP)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S-NAP의 수집 주제 영역의 도출 방법과 수집 실행 프로세스의 설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S-NAP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팀은 S-NAP의 수집 주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이라는 광역 지역의 총체적인 기록화 영역을 포괄하여 S-NAP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학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서울 내의 다양한 기록 활동 주체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수집 주제 영역에 따른 관련 연구 논문, 저서의 분석과 다큐멘터리 영상, 언론 기사, 문화예술 작품 등의 광범위한 영역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수집 주제 영역과 하위의 수집 지침으로 구성된 S-NAP의 구조를 이해한 뒤, 수집의 범위와 주제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기록의 서사적 맥락, 대표적인 수집 대상 기록물과 관련된 주체의 정보 등으로 구성된 S-NAP의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연구팀은 앞의 설계과정을 통해 수집 주제 영역과 수집을 실행하는 수집 단위 기록의 맥락을 유기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고, 관련 기록 주체들을 포괄하는 수집 실행지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사 기반 기록 수집 전략과 실행지침을 이해하고 기록화를 위한 S-NAP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S-NAP은 수집 실행지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기록 콘텐츠로 활용가능하며, S-NAP 기반의 수집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 개발의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S-NAP 기반의 기록화를 실행하는데 핵심 요소인 기록 주체간의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앞의 설계 과정 및 도출 과정을 통해 개발된 S-NAP을 수집 실행지침으로 실무에 적용해봄으로써, 연구팀은 S-NAP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특징 및 설계 방법

1)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특징

기록화를 위한 평가·선별에 있어 기록이 갖는 가치를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근대 이후의 기록학계 논의는 캐나다의 거시평가 정책이나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도출시켰다. 기록이 갖는 의미나 가치를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당대 관점의 기록화 전략에 대해 이러한 관점 역시 중립성이나 불편부당성이 결여되어 비기록학적이라는¹⁾ 비판도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록의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기록화 방법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기록 활동 주체를 식별하여 이들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 구조를 토대로 기록 수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지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기억을 기록화하는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기본을 따른 것이다(설문원 2012, 9).

기존의 거시 평가 모델에 기반한 업무기능 출처에 따른 기록 수집 정책

1) Terry Cook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의한 기록 수집이 인위적이고 추상적 범주의 분석으로 유기체적 일관성을 갖지 못한 비기록학적(unarchival) 방법론이라 지적하였다(Terry Cook 1992; 설문원 2017, 17 재인용).

은 행정기록 위주의 단편성을 띠며, 기록간의 맥락이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단절된 채 기록이 파편적 형태로 수집되어 남아있게 된다. 특히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 기존에 남아있는 행정기록 이외에 시민들의 삶으로 체화된 사회적 기억의 실재를 남기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론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관통하는 서사 형식을 개발하고 서사를 중심으로 기억을 표상하는 기록을 식별하여 구조화하는 작업을 실행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즉 기록화 대상을 포괄하는 서사 형식의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출처를 아우르는 기록 수집 실행 전략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저장하는 서사 기반 아카이빙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이 갖는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괄하는 기록화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사례에서 지향하는 바는 대도시를 살아가는 일상 시민들의 생활을 재현하고 서울이 갖는 장소성의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의미를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론의 구축이다. 서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즉,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록화 전략을 고민한 결과를 담고 있다.

둘째,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미시사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을 아카이빙하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중심으로 기록화하여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를 드러내며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록물을 식별하여 조직화하는 수집 실행 전략을 통해 미시사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

셋째,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기록 이면의 내러티브를 찾아 본질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시도한다. 서울이라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인물, 사건, 장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확장하여 수집 주

제 영역의 서사 구조와 연결함으로써 기록이 갖는 본질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직한다. 특히 분산되어 존재하는 기록들을 서사 기반으로 조직화하며 결락 부분을 식별하고 수집 대상 객체들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실제 수집 실행 단위를 도출하였다. 기능 중심의 시정 기록 수집의 한계를 시민들의 기록을 기록화하는 기록들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을 수집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들을 수집 주제 영역별 대서사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도록 조직하였다. 또한 서사 구조로 조직되는 기록들의 생산 및 관리 주체들을 식별함으로써, 이들의 기록 활동을 수집 실행지침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협력 체계 유지를 통해 기록 자치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S-NAP 설계 방법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S-NAP)은 서울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기록을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서울을 포괄할 수 있는 수집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실행지침들이 행정적인 편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틀을 고려하여 영역들을 설정하였다면,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아카이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기층적인 이해와 인지 방식을 중심으로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사회 구조적 측면 외에 서울의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9개의 광범위한 수집 주제 영역 단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상징 (Symbol)
 사상과 가치 (Idea&Value)
 흐름 (Flow)
 활동 (Activity)
 생명과 이야기 (Life&Story)
 관계망 (Network)
 구조 (Structure)
 이벤트 (Event)
 물질 (Stuff&Things)

이러한 영역들은 각각의 영역이 기존의 행정적 구분으로 나뉘었던 영역들을 교차적으로 넘나들면서 상호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흐름(Flow)”라는 영역은 물류와 상품, 그리고 아이디어의 흐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지역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삶의 유통하는 흐름의 양태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마찬가지로, “구조(Structure)”는 기존의 “구조”라는 영역이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인 구조만을 포착하였다면,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 지침에서는 물질적인 구조를 넘어서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와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총 9개의 광범위한 수집 주제 영역 단위를 설정한 후에는, 기존의 실행지침을 검토하여 혹시 빠진 항목들이 있거나 영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번의 새로 구성된 영역들이 서울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제 영역은 고유의 내러티브를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이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수집 실행 단위들을 배치하였다. 즉 수집이 실행되는 수집 단위들이 하나의 서사로 묶임으로써 기록이 갖는 맥락과 기록 이전의 상징적 의미들이 살아나고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

9개로 설정된 수집 주제 영역별로 실제 수집을 실행하게 되는 단위인 상

위 S-NAP와 하위 S-NAP를 두었다. 상위 S-NAP와 하위 S-NAP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울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영역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 주제 영역의 대서사에 부합하며 서울을 표상하는 기록 객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수집의 실행 단위들을 도출하였다.

S-NAP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연구기관, 언론사, 문화예술영역, 민간영역을 망라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 목록,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학연구소, 서울 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 사진아카이브, 서울 역사아카이브, 서울연구원, 서울 역사편찬원, 서울 정책아카이브, 국가기록원, e영상역사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자료들을 주제 영역별로 리스트업 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검토한 자료의 유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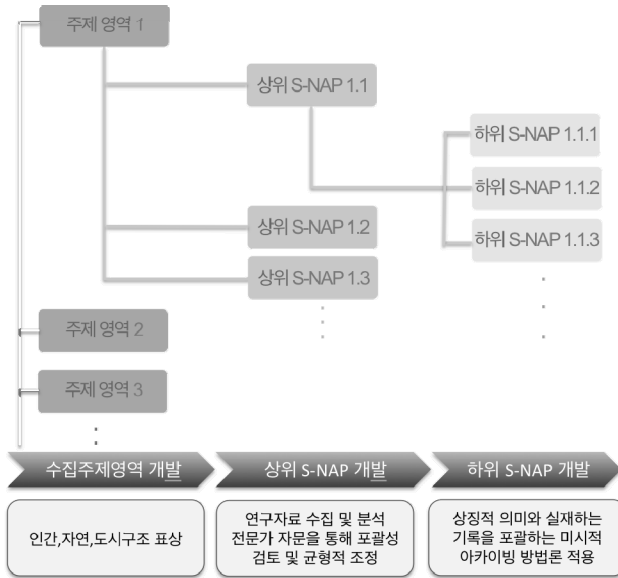
〈표 1〉 주제영역 연구자료 수집 관리

자료유형	자료범위
연구자료	서울학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저서, 정책보고서, 간행물, 역사자료 등
언론자료	언론기사, 심층취재 기사 등
영상자료	다큐멘터리 영상자료, 독립영화 등
문화예술자료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민간기록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의 민간 기록
행정기록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국가기록원의 기록 목록
전문가 자문	역사, 건축, 문화인류학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주제 영역별로 도출된 상위 S-NAP 하위에는 실제 수집 대상 객체들을 포괄하는 하위 S-NAP를 배치하였으며 이것은 상위 S-NAP 내러티브의 구성요소가 된다.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은 주제 영역별 대서사를 두고, 이 주제 영역에 포괄되는 상위 S-NAP를 설정하고, 상위 S-NAP의 서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하위 S-NAP를 배치하는

계층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존재하는 기록의 실체를 포괄하고, 현상이 의미하는 것을 포착하려는 미시적 아카이빙 실행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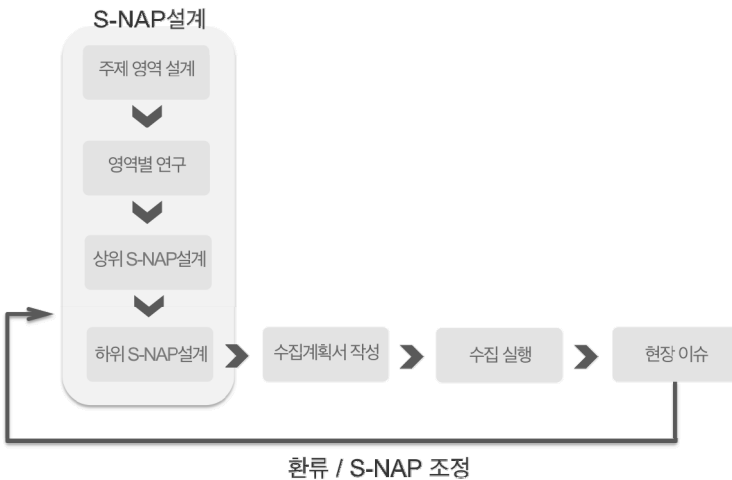
〈그림 1〉 S-NAP 구조 및 설계 방법론



이렇게 도출된 S-NAP의 구성에 대해 역사학과 인류학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S-NAP을 확정하였다. 역사학과 인류학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은 S-NAP이 추구하는 서울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지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S-NAP의 구성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기 위해 인문사회의 분류체계 및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S-NAP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요소들을 조정하여 균형적 S-NAP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S-NAP을 기반으로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수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S-NAP의 서사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다. 이는 <그림 2>의 S-NAP 설계와 수집실행 관계도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제 수집에서는 S-NAP을 기반으로 수집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계획한 수집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활용하여 수집을 실행하게 된다. 실제 수집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수집 대상 객체를 모으고 그 대상 객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기억하는 기억체를 수집하고, 다시 이것들을 서사 기반으로 엮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S-NAP의 서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집 현장에서 식별되는 문제들이 S-NAP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가지며 수집 실행 계획의 순환적 프로세스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사회적 기억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누락되었던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서울의 다원적이고 다층적 기록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2> S-NAP 설계와 수집실행 관계



이 과정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NAP의 설계 영역에 따라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집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이슈들을 다시 S-NAP으로 반영하여 수집 실행지침을 수정·보완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 이것은 S-NAP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현장의 구체성을 반영하여 실무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개발 및 활용

1) S-NAP 구조와 내용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설계 과정에서 서술하였듯이 주제 영역과 상위 S-NAP, 하위 S-NAP는 하나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며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서울을 기록화하기 위해 개발한 S-NAP의 사례를 통해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구조와 구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의 서사를 담은 9개의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다. 9개의 수집 주제 영역과 더불어 모두 61개의 상위 S-NAP를 도출하였고, 하위 S-NAP는 184개를 도출하였다.²⁾ 상위 S-NAP는 주제 영역이 갖는 대서사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세부 수집 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고유 서사를 갖도록 구조화하였다. 하위 S-NAP는 실제 수집이 실행되는 단위로서 수집 지침을 구성하였다.

각 주제 영역별 S-NAP의 구조는 <표 2>와 같다.

2) 서울기록원의 S-NAP는 후속 연구 사업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표 2〉 '상징' 주제 영역의 S-NAP 구성

상징 Symbol	
1.1 매일이 새로운 첨단도시 서울	1.1.1 미래기술 도시-하이테크가 싣고 온 미래 1.1.2 생태도시-도시 너머의 녹색 생태환경 1.1.3 의료도시-첨단메디컬시티로의 도약
1.2 서울의 옛 것	1.2.1 한양도성-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1.2.2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1.2.3 장인-기억해야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1.3 서울의 삶과 말과 표시들	1.3.1 서울의 말 1.3.2 '통치'의 슬로건 1.3.3 표시와 광고의 흥수 1.3.4 협치와 소통-소통합니다
1.4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1.4.1 석조건물과 콘크리트건물-석조를 밀어낸 콘크리트 1.4.2 콘크리트 랜드마크 1.4.3 고가도로-머리위로 올라간 콘크리트 도로 1.4.4 콘크리트와 생태의 만남 1.4.5 콘크리트의 재생산-아파트 1세대의 향수
1.5 삶의 이름, 골목길	1.5.1 경리단길-뜨고 지는 서울의 골목들 1.5.2 덕수궁 돌담길 1.5.3 해방촌길-분단의 산물 해방촌길 1.5.4 골목길-삶의 온기를 나누는 길
1.6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1.6.1 이순신 동상-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상, 이순신 동상 1.6.2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을 통해 응집된 기억
1.7 광장의 외침	1.7.1 마로니에공원-마로니에 공원의 자성과 문화적 열망 1.7.2 광화문광장-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1.7.3 장충단공원-장충단공원의 명과 암 1.7.4 여의도공원-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 공원
1.8 거침없이 새로운 시도들	1.8.1 돈의문 박물관마을 1.8.2 서울혁신파크-같이 만드는 이정표, 서울혁신파크 1.8.3 서울창업허브 1.8.4 제로페이-서울상생을 위한 제로페이
사상·가치 Idea&Value	
2.1 이데올로기 공화국	2.1.1 학생운동 2.1.2 민주화운동 2.1.3 반공 이데올로기
2.2 가부장적 뿌리와 아픔	2.2.1 가부장주의 2.2.2 집창촌
2.3 갑질에서 을질로	2.3.1 갑정노동 2.3.2 일용직노동 2.3.3 불법취업
2.4 배움없는 배움	2.4.1 강남8학군 2.4.2 in서울

2.5 의례, 믿음, 그리고 안식	2.5.1 무속 2.5.2 종교
2.6 인디가 가치다	2.6.1 인디문화 2.6.2 독립영화 2.6.3 대중가요
2.7 삶 속으로의 예술	2.7.1 문학작품-서울을 문학하다 2.7.2 예술작품-그림으로 담은 동네
흐름 Flow	
3.1 지하의 삶과 문화	3.1.1 지하철-지하철과 사람들 3.1.2 지하상점과 지하이케이드 3.1.3 지하도시-지하생활자
3.2 사람들의 물결	3.2.1 이촌향도-고향을 떠난 실향민의 도시 3.2.2 서울유학생 3.2.3 서울관광객 3.2.4 도시유목민
3.3 불야성 거리의 정동(情動)	3.3.1 꺼지지 않는 불빛 3.3.2 은밀한 성문화 3.3.3 24시간 편의점
3.4 5일장에서 스마트 마켓까지	3.4.1 재래시장-장날의 추억 3.4.2 백화점과 쇼핑센터 3.4.3 온라인 쇼핑과 택배 3.4.4 도시의 장
3.5 땅에 출렁이는 돈과 투기심	3.5.1 젠트리피케이션-젠트리피케이션이 집어삼킨 우리동네 3.5.2 욕망과 투기의 무한증식
활동 Activity	
4.1 직장에서, 가게에서	4.1.1 전문직-전문직과 돈방석 일자리 4.1.2 자영업-생존경쟁의 늪에 갇힌 자영업의 굴레 4.1.3 미래의 도시 노동-미래를 여는 노동
4.2 가사는 노동이다	4.2.1 재생산노동-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4.2.2 가사기계-홈 오토메이션 4.2.3 가사노동-식모에서 외국인 가정부까지, 가사노동의 아웃소싱
4.3 돌보는 세상을 향해	4.3.1 아이돌봄-아이돌봄 사슬의 프레카리아트 4.3.2 노인돌봄-노인돌봄의 탈가족화 4.3.3 돌봄공동체-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
4.4 서울의 배움과 학습	4.4.1 입시제도-입시지옥의 탈출구를 찾아서 4.4.2 학교교육-성장하는 학교, 배움공동체 4.4.3 돌봄공동체-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
4.5 의식주, 돈인가 사치인가 필요인가 편안함인가?	4.5.1 소비생활-쇼핑의 달인 4.5.2 명품족-계급을 구분짓는 사치와 취향 4.5.3 부동산투기-강남불패의 역사 4.5.4 자급자족의 도시-팍시티로의 진화, 자급자족 서울

4.6 관계의 속박, 그리고 새로운 변주들	4.6.1 새로운 가족의 탄생 4.6.2 공동체관계-내가 선택하는 친밀공동체 4.6.3 갑을관계-올들의 반란
4.7 서울의 쉼과 놀	4.7.1 여가-여가의 시대 4.7.2 놀이문화-서울의 호모 루덴스 4.7.3 스포츠-올림픽을 넘어 일상속의 스포츠
4.8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의 리그	4.8.1 선거 스케치 4.8.2 직접민주주의-미래를 바꾸는 정치참여 4.8.3 풀뿌리 민주주의
생명과 이야기 Life&Story	
5.1 일하는 삶들	5.1.1 도시노동자-도시노동자가 된 상경민 5.1.2 성노동자 5.1.3 외국인 노동자-타국에서의 삶, 외국인 노동자 5.1.4 야간노동-달빛 속 노동
5.2 피로사회	5.2.1 성과 사회 5.2.2 우울증-마음건강과 현대인의 우울 5.2.3 노동시간-주 52시간과 워라밸
5.3 혼자 사회의 삶과 문화	5.3.1 N포세대-포기의 시대, N포세대 5.3.2 청년실업-안정, 이상, 현실의 트라이앵글, 청년실업 5.3.3 아르바이트 5.3.4 혼자문화-나 혼자 먹는다
5.4 차별과 혐오의 틈바구니에서	5.4.1 장애인혐오-장애인 택시 5.4.2 여성혐오-여성을 혐오합니다 5.4.3 아동혐오-아이들 출입금지, 노키즈존 5.4.4 성소수자혐오-LGBT에서 LGBTQ+로 5.4.5 노인혐오-경로가 아닌 혐로
5.5 가족주의의 차이와 반복	5.5.1 다양한 가족 형태-전통적 가족의 해체 5.5.2 비혼-결혼은 선택 5.5.3 국제결혼
5.6 함께 자연	5.6.1 동물복지-동물권 보장을 위한 동물복지 5.6.2 야생동물-도심 속 야생동물 5.6.3 서울숲과 도시녹화, 수생태계
5.7 제2, 제3의 인생	5.7.1 노인빈곤-신녕마주이와 노인빈곤 5.7.2 일하는 노인-워킹 실버 5.7.3 노인의 연애-황혼의 연애, 로맨스 그레이
5.8 우리 곁의 죽음	5.8.1 높은 자살률 5.8.2 고독사
관계망 Network	
6.1 되살아나는 마을들	6.1.1 성미산마을 6.1.2 정릉마을 6.1.3 마을만들기 지원

6.2 조합의 현장, 그리고 새로운 협동의 시도들	6.2.1 노동조합 6.2.2 협동조합
6.3 교통으로 만나다	6.3.1 도로망 6.3.2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 6.3.3 서울의 관문 6.3.4 서울의 하늘길 6.3.5 고속버스터미널
6.4 정보 네트워크	6.4.1 통신망 6.4.2 방송 6.4.3 SNS
구조 Structure	
7.1 통치에서 협치로	7.1.1 행정구역의 변천 7.1.2 굿거버넌스
7.2 한옥에서 펠리스까지	7.2.1 사라지는 근대 건축물과 한옥 7.2.2 달동네-쫓겨난 사람들의 공동주거 7.2.3 아파트에 갇힌 욕망
7.3 인프라의 혜택과 비혜택	7.3.1 안심지원서비스-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라 7.3.2 의료시스템-건강의 공공성과 의료시스템 7.3.3 정보접근성-언제 어디서든 무료(공공) 와이파이
7.4 변화하는 문화공간	7.4.1 세종문화회관-예술, 시민의 곁으로 7.4.2 소극장-관객과의 티키타카 7.4.3 동네 작은 책방
이벤트 Event	
8.1 도시의 죽음	8.1.1 암살-소리없는 권력의 재구성 8.1.2 노덕술-고문기술자, 노덕술 8.1.3 박종철 고문치사-아만적 폭압, 고문치사 사건 8.1.4 91년 봄, 11인의 죽음-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8.2 운동장 정치	8.2.1 장충체육관 선거-투표권이 없는 시민들 8.2.2 서울올림픽-서울올림픽을 통한 허위 기적 주도 8.2.3 한일월드컵-광장문화의 시작 한일월드컵
8.3 제국주의의 망령	8.3.1 중앙청 철거-제국주의 그림자 지우기 8.3.2 친일파 동상-친일파 동상 설립과 철거 사이
8.4 버림받은 시민들	8.4.1 제1한강교 폭파-국가의 배신 8.4.2 메르스-구멍난 방역체계 8.4.3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중산층 신화의 허상 8.4.4 비정규직 김용균, 구별 짓기 속 착취와 버림의 반복
8.5 미군부대	8.5.1 미선이 효순이-사라진 가해자 8.5.2 용산철수-반세기만에 개방된 한미동맹의 상징
8.6 사람답게 사는 세상	8.6.1 전태일-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8.6.2 구로동맹파업-노동자 연대의 시작 8.6.3 강남역 살인사건-물지마가 아닌 혐오의 폭력

8.7 촛불로 다시 태어나	8.7.1 광우병 반대시위-주체가 되어 광장으로 나온 시민 8.7.2 4.16광화문촛불-노란리본과 마음을 나누는 촛불 8.7.3 탄핵 촛불-광장의 촛불 민심
8.8 우리 곁의 재난	8.8.1 대연각 화재-생존계단 재난의 현상 8.8.2 삼풍백화점 붕괴-급속성장과 부패의 결합 8.8.3 성수대교 붕괴-책임 폭탄 돌리기
8.9 축제와 향연	8.9.1 마을문화축제-소통과 교류를 통한 마을 문화 8.9.2 한강 축제-시민에게 한강을
물질 Stuff&Things	
9.1 오천년 숨결이 흐르는 한강	9.1.1 역사가 흐르는 강 9.1.2 경계와 이동 9.1.3 한강으로 흐르는 문화예술
9.2 서울 스피릿, 남산	9.2.1 국사당과 일본신사-신성한 산에 남은 식민지 상처 9.2.2 반공이데올로기의 상징-공포정치의 상징 9.2.3 도시공원
9.3 도시의 불빛	9.3.1 광공해-별빛을 지운 광공해 9.3.2 도시의 가로등-안전을 밝히다
9.4 서울의 맛	9.4.1 궁중요리-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갖는 궁중요리 9.4.2 실향민의 요리-맛으로 그리는 고향의 그리움 9.4.3 서울 속의 세계요리
9.5 도구의 문화사	9.5.1 일하는 사람들의 도구 9.5.2 문화예술을 만드는 도구
9.6 오늘, 서울의 소리	9.6.1 노동의 소리를 듣다 9.6.2 일상의 소리를 듣다
9.7 물질의 순환과 환경오염물	9.7.1 대기오염-미세먼지에 갇힌 젓빛 하늘 9.7.2 소음-도시를 채우는 소음 9.7.3 폐기물-환경오염물이 불러올 재앙
9.8 예코주의	9.8.1 친환경정책-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하여 9.8.2 재활용-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첫 번째 주제 영역인 '상징' 영역은 서울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건물, 말과 표시, 시민의 활동이 응축된 장소 등을 주제화한 것으로 모두 8개의 상위 S-NAP와 29개의 하위 S-NAP로 구성되어 있다.

대도시 서울이 상징하는 첨단 도시의 이미지, 600년 수도가 갖는 이야기,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삶과 삶의 터전인 서울이 갖는 장소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포괄하는 상위 S-NAP를 구성하였다. 상위 S-NAP은 서울의 기록화를 위한 세부 수집 주제로서 고유의 서사를 갖고 있다.

상위 S-NAP마다 실제 수집할 객체를 다루며 수집 실행지침을 작성하는

단위인 하위 S-NAP를 3~5개 정도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1.1 “매일이 새로운 첨단도시 서울”의 하위 수집 실행지침으로는 서울의 첨단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구축 과정을 기록화 할 1.1.1 “미래기술도시-하이테크가 신고 온 미래”, 서울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하는 1.1.2 “생태도시-도시 너머의 녹색생태환경”, 서울의 의료제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새로운 의료산업에 주목하는 1.1.3 “의료도시-첨단메디컬시티로의 도약”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S-NAP의 명명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의미의 상징적인 단어들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행정적인 명칭과 비교할 때,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가에 대해서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기록 수집을 위한 서울 기록 생태계 구성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위 S-NAP 요소들의 상징적 명명은 지명된 그 대상보다 실제 수집 범위를 폭 넓게 확장하여 수집 실행지침이 작성되었으며, 상위 S-NAP의 서사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살려 기록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주제 영역은 ‘사상과 가치’로 서울을 지배하는 오랜 가치와 습관,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화·예술을 주제화한 영역이다. 시민들의 삶으로 체화된 생각과 사상이 발현되어 실재하는 지점들을 찾아 7개의 상위 S-NAP 요소를 구성하고, 17개의 하위 S-NAP를 두었다.

세 번째 ‘흐름’ 주제 영역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로 집중되는 사람과 자본, 사물의 흐름을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흐름의 메커니즘과 현상을 주제화하여 5개의 상위 S-NAP를 구성하고 16개의 하위 S-NAP를 도출하여 배치하였다.

네 번째, ‘활동’은 서울이라는 장소가 갖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주제이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직업활동, 노동활동, 교육, 생활, 사회관계, 여가, 정치 활동을 8개 영역으로 상징화하고, 그 하위에 25개의 하위 S-NAP를 두었다.

다섯 번째 ‘생명과 이야기’ 주제 영역은 서울을 살아가는 다양한 군중들의 삶의 이야기와 일상의 표정을 담고자 하였다. 노동자로서의 서울 시민

의 삶, 현대인의 생활, 도시의 인구와 가구의 변화하는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차이와 차별의 경계에 위태롭게 존재하는 도시인의 모습 등을 8개의 상위 S-NAP 주제 영역으로 구성하고 하위 S-NAP 27개를 도출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영역인 '관계망', 네트워크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체제에 주목하여 관계를 주제화 하였다. 이 주제 영역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들,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시도들, 교통 방송 통신 인프라를 다룬다. 4개의 상위 S-NAP와 13개의 하위 S-NAP로 구성된다.

일곱 번째, '구조' 영역은 도시 구조의 시공간적 층위 위에서 서울의 인프라 구조를 드러내는 주제 영역이다. 통치구조, 주거구조, 도시 인프라, 문화 인프라의 4개 상위 S-NAP와 11개의 하위 S-NAP를 구성하였다.

여덟 번째,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사건', 이벤트를 통해 서울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상위 S-NAP를 9개 요소로 확인하였다. 차가운 도시에서의 정치적 타살, 제국주의의 상처, 국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의 절규, 그리고 엄혹한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의 연대와지지 등으로 구성된 9개의 상위 S-NAP를 도출하였고 26개의 하위 S-NAP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물질'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물질 요소들을 8개 영역으로 조직화하였고, 여기에는 자연 경관과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도구, 환경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하위 S-NAP는 20여개로 구성하였다.

2) S-NAP 작성 예시

S-NAP의 구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집 주제영역과 상위 S-NAP, 그리고 하위 S-NAP로 구성되어 있다. S-NAP 작성은 이 구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그림 3>과 같이 각 주제 영역별 대서사를 작성한다. 서울을 표상하는 상징적 주제 영역을 의미와 상징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해당

S-NAP의 요소들을 관통하는 서사를 구성한다. 대서사 작성과 함께 해당 주제 영역의 S-NAP 구성 개요를 작성한다.

〈그림 3〉 주제 영역 서사 작성 예시

FLOW(흐름)

서술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이곳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흐름(flow)을 살펴보는 것이다. 흐름이란 사물의 흐름, 사방의 흐름, 강령의 흐름, 그리고 육영과 돈의 흐름을 가리킨다. 그 흐름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사물이 간섭적인 자본주의 근대화 의 본질을 드러낸다.

반어권이 19세기 말의 육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아케이드를 통해서 그 시대를 열어 내리 한 것처럼, 무리도 사물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흐름을 신중하게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은 서술을 가로지르는 흐름이 (개별적인 물체와) 상징적기. 지하철과 지하아케이드가 가능하게 했던 지하생활이 상상은 오늘날 현실 속에 흔적 확대되어, 화려한 지하도시와 비선과 미래가 없는 지하생활자의 암울한 삶으로 영분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사물들은 늘 빛깔을 바라봐도 시골로 유된다.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근대 한양은 아케이드의 흔적이었던 서술, 그곳에 오늘날에는 유희의 공간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출세이다. 서울의 발달 속에는 순간, 24시간이 흘러 불어오는 삶이 시작된다. 홀사위들은 강행단 이근으로 형성된, 보수 법까지 사할 준비로, 그리고 24시간 단락점의 노동자들은 사선이 후사인 그릴 노동으로 발을 세운다. 자본주의 근대화의 그림자인 무늬한 성분화는 왜곡된 성의의 위로의 정통을 지극까지도 슬그머니 상상한다.

주제 영역 대서사 작성

서울의 또 다른 흐름은 상류의 유형이다. 서울에는 S당상부의 스마트마케팅까지 시장의 각 진화 단계가 모두 존재한다. 서울의 전통사당들은 지역 경제의 기능을 맡고 있지만, 오늘날 재래시장은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 활기있게 더 인기 있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려 쇠약해 가는 시장은 상고기 위한 각종 이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균질의 가치로 환산되는 고급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육안은 백화점의 화려한 면을 늘 눈부시게 바라본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한양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례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실재로 은근히이것을 향해 있으며, 더 빨리 더 빠른 백화점 서비스의 길척하여 때때 노동자들의 복지와 복수현은 쉽게 잊어가 버린다. 서울은 돈과 권력이 집중하는 공간이며, 그 핵심인 이윤을 향한 힘에 존재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부동산투기의 그 정통한 욕망은 사실상 1970년대부터 고착시켜 권력투기에 의해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은, 그러해서 우리는 반드시요 전가 명예 때에 늘 존재하는 인연가 되어나도 것이다.

S-NAP 구성

- S-NAP3.1 지하의 실과 문화
- S-NAP3.1.1 지하층-지하철과 사람들 / S-NAP3.1.2 지하상층-지하상점과 지하아케이드 / S-NAP3.1.3 지하도시-지하생활자
- S-NAP3.2 서울의 도시
- S-NAP3.2.1 이촌향도-고향을 떠난 생활의 도시 / S-NAP3.2.2 서울유형성 / S-NAP3.2.3 서울관광역 / S-NAP3.2.4 도시유형성
- S-NAP3.3 불어선 거리와 정동(情動)
- S-NAP3.3.1 가지지 않는 불빛 / S-NAP3.3.2 흔들림 성분화 / S-NAP3.3.3 24시간면역
- S-NAP3.4 50년째서 스페트 마켓까지
- S-NAP3.4.1 재래시장-전설의 추억 / S-NAP3.4.2 백화점과 쇼핑몰 / S-NAP3.4.3 온라인쇼핑과 택배 / S-NAP3.4.4 도시의 장
- S-NAP3.5 물에 출렁이는 돈과 투기심
- S-NAP3.5.1 권력투기이전-권력투기이전선이 집어삼킨 무리들 / S-NAP3.5.2 부동산-복합과 투기의 무연종식

S-NAP 구성 개요 소개

주제 영역의 서사 작성이 완료되면, 〈그림 4〉과 같이 상위 S-NAP의 서사를 서술하고, 해당 하위 S-NAP 단위로 〈그림 5〉과 같은 수집실행지침을 작성한다. 주제 영역별 서사와 상위 S-NAP의 서사, 그리고 수집 객체의 수집 지침을 서술한 하위 S-NAP는 상호 유기적 맥락 속에서 기록 수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상위 S-NAP는 수집 주제 영역의 대서사에 부합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 수집 대상들을 설정하였다. 해당 주제 영역을 포괄적으로 표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집 대상 기록 객체들을 아우르기 위해 서사 구조를 채택한다.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고 수집 대상 범위에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 중심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서술한다.

〈그림 4〉 상위 S-NAP 작성 예시

S-NAP2.1 이데올로기 공화국

동네 노인들의 정기편에도, 택시 안 텅텅하고 습한 냄새 속에도, '불굴', '불목' 날 술집의 사골비빔한 대화 속에도 그저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곳이 서울이다. 서울을 뒤덮어 지금도 견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박정희 정권 때 주조된 것들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지배 이데올로기는 서울 시민의 생각들 속에, 문화와 생활 습속 속에 뿌리 내려, 지금은 '세대 전쟁', '진영 전쟁'의 양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뿔쳐나온 학생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셀 수 없는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불길들이 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왔다. 장엄한 반독재 투쟁이 이제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삶과 정치 속에 스미게 하겠다는 100만 시민의 촛불집회로 옷을 갈아입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표시되었던 저항 이데올로기는 점차 삶의 민주주의, 정착함과 나눔의 새 정신으로 변모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의 서울은 지배된 저항이든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벗어 던지고 "정착하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삶의 문화와 정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S-NAP "이데올로기 공화국"의 하위 수집실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학생운동-한국적 민주주의의 뿌리와 가지",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 그리고 새로운 울름", "반공이데올로기-분단 이데올로기의 성흔"으로 구성된다. 서울의 정신적 삶 하면 역사의 두 장면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떠오른다. 그 두 장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조차 과거가 되어 유제로서, 기억으로서 남아 있을 뿐임을 말해준다. 바로 지금의 젊고 인디적인 서울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재미있고 맑고 정착한 민주주의의 미래 모습을 문득 보여준다.

하위 수집 실행지침의 구성은 〈그림 5〉의 사례와 같이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S-NAP의 서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 부분을 두었다. 두 번째로는 기록물 수집의 범위를 서술하였다. 세 번째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에는 수집 대상 가운데 대표적 내용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기록들을 생산하거나 관리,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록 활동 주체들을 식별하여 수집 대상 기록 객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록 활동 주체를 4개 유형³⁾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수집 실행 도

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기록 활동 주체 현황은 운영 기관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 하며 S-NAP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림 5〉 하위 S-NAP 작성 예시

S-NAP2.3 기사노동-식모서에서 외국인 가정부까지, 기사노동의 아웃소싱

의의와 가치

도시화와 산업화의 통합에 협동해 과학을 따라 서울로 온 여인 역사는 도시의 역성화주체(Subalter)로 '식모'라는 기사 노동자 생활을 통해 도시공간의 격변주의 질서에 흔적되고 노동 상황화 과정을 학습했다. 기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에서 이들은 종속적 고용관계로 일상적 사회적 격차를 감내하였다. 오늘날 소년대라고 할만큼 여성 노동의 상징인 '식모'는 사라졌는가? '식모'의 가치를 되찾고, 기사노동자가 대외적으로 있는 일은 일종의 자존감의 회복에서 사회적 기사 노동 회복을 위한 유익한 활동을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노동의 아웃소싱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관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범위

한국 현대사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략한 저임금층 여성들이 식모라는 이름으로 기사 노동에 헌신한 모습을 추적하고, 기사 노동의 아웃 소싱 관점에서 현존 기사노동자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오늘날 기사 노동의 재규정은 물론 노동의 현황을 담으려한다.

내용

계정서양이 좋지 못했던 농가에서 태어난 딸들은 그들의 의식주를 제 손으로 해결하도록 태워졌고, 이들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가내일과 아이 돌봄을 전담하는 식모가 되었다. 1970년대 서울 시장의 31%가 식모로 살고 있었다. 당시 서울의 식모 수는 36.6만명으로 추산되나 이들의 월급은 400~500원 가량으로 달인 작업인 월급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식모의 직주는 하루 일 동안 사이에

- 모퉁이, 2013, 도시의 불만과 여성노동자-1970년대, '식모' 탈출의 소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호
- 서울신문, 2017.5.28, 서울신문, <그림책 사회문제> 확대

존재하는 1.5명의 작은 밥, 식모들이 프랑하는 그대로이다. 식모들은 드러내지 않은 '사적 영역'에 존재하여 이념과 노동권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사회적 책임적인 위상은 뒤늦게 요구되기도 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기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식모 살인'을 경한한 이희승의 구술 자료
- 식모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자료
- 식모의 임금수준 자료
- 식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신문 기사
- 식모가 주체가 된 범죄, 관련 신문 기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1960년대~70년대 민중투쟁과 여파들의 '식모방' 도면 및 사진 자료

식모들은 1970-80년대의 경제성장과 임금격차에 따라 일거리의 증가와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사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은 직업소속도를 거쳐 가정부, 저층모로, 입구에서 출퇴근 시간제 노동자로 변모하여 하나의 직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손님 접대를 위한 요리, 전담 저층모로서의 출장 방문으로 몸집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기사 노동은 기사 서비스업으로 대항해 보편화 되었으며 직업소속뿐만 아니라 사회화되던, 서울 YWCA 등을 거쳐 교육되었다.

- 서울YWCA, 1964, 한국 최초 시간제 가정부 훈련 프로그램
- 1979년 식모 임금 변화 추이 분석 자료

1990년대 양질의 가정이 증가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사 노동이 등장하였다. 기사 노동의 양질은 여권의 사회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개인 가정으로 한정되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입주 기사 도우미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기사 노동자들은 이후 국민 여당들의 정책목표도 노동정책 밖에서 존재하는 숨은 노동층이다.

*** 박달수, 2016.10.16., 경향신문, 기사와 - 1960-70년대 민중투쟁과 여파의 식모방

이상에서 식별된 수집 대상 기록들을 관련 주체의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및 종별기관**
 - 통계청의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 자료
 - 서울시의 통목이국간 현황(체류자역량) 통계 자료
 - 서울시 노동인권정책연구소 노동정책담당관의 2018년 서울시 기사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
 - 한국노동연구원의 월봉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집실태조사 자료
 - 서울시 노동인권센터
 - 한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외국인 기사 노동자 임금 수준 자료
- **정부신뢰감공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1960년대~70년대 민중투쟁과 여파들의 '식모방' 도면 및 사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월봉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자료
 - 식모의 임금수준 자료
 - 시간제 식모 임금 변화 추이 분석 자료
 - 외국인 기사 노동자 임금 수준 자료
 - 월봉통 기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자료
- **민간영역**
 - 서울YWCA, 1964, 한국 최초 시간제 가정부 훈련 프로그램
 - 한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서울시 노동인권센터
 - '식모 살인'을 경한한 이희승의 구술 자료
 - 식모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자료
 - 식모를 관련 법원에 대한 신문 기사

3) 4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①서울시 및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객체와 ②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객체를 확인하였고, ③협치기관으로 서울시 내의 중간지원조직이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활동과 기록화 대상을 식별하였고, ④서울시 내의 민간영역 단체들의 활동과 기록화 대상을 식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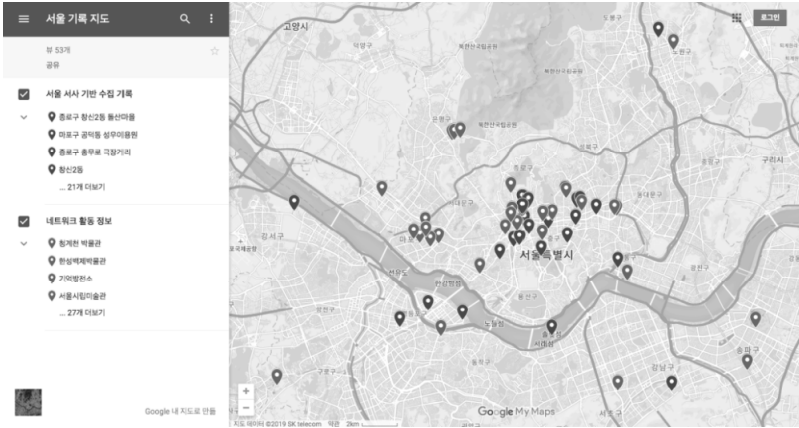
3) S-NAP 활용 방안

지금까지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이 기록화 전략으로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수집 방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술하였다. 이러한 지향성은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을 참조할 때, 실제 수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리드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서사를 구체화하고 이를 수집 실행 계획서 작성을 통해 기록 수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 준비 절차와 수집 실행 과정의 산출이 S-NAP으로 환류되는 순환적 프로세스 구축은 S-NAP이 갖는 주제 수집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수집 실행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확립한다. 서사 중심의 아카이빙 방법이 갖는 이러한 특징은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이 수집 실행의 도구로 작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S-NAP은 수집 실행지침으로서 수집에 활용 가능한 수집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S-NAP에 따라 수집된 기록은 주제별로 서사 맥락에 따라 기록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록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 영역의 대서사의 구성 요소로서 각 S-NAP 단위는 고유의 서사를 갖고 있으며 기록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부여한다. 이용자에게 기록의 맥락 정보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기록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NAP에 기반한 2019년 시행한 기록 수집의 결과를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서울기록지도를 개발하였다(〈그림 6〉, 〈그림 7〉 참조). 수집 결과를 제공하는 서울기록지도의 가장 큰 두 축은 수집된 기록 객체와 기록 활동 네트워크를 장소성에 기반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서울을 표상하는 기록의 분포와 기록 간의 서사 기반 맥락 관계를 표현하여 수집한 기록 컬렉션 현황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둔 기록 활동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대상으로 식별된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6〉 서울기록지도 예시



〈그림 7〉 서울기록지도의 수집 기록 목록과 네트워크 활동 목록 예시



기록지도(Archival Map)는 수집된 기록을 서사, 이야기로 확장하여 시공간 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록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며, 기록 활동 네트워크를 식별함으로써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의 기반 도구로 침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이 갖는 유기적 맥락 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한 것이며, 단계적 수집 활동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광역 지역 전체를 망라하는 지도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서울기록원에서 수행한 S-NAP 연구 작업을 사례로, 수집 정책 개발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하였으며, 서울이라는 광역 지역의 기록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집 실행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서사 기반 아카이빙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서울형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이 기존 수집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집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서울기록원의 사례는 수집 실행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주제 영역의 설정과 대서사에 부합하는 세부 주제 영역인 상위 S-NAP의 도출, 수집 대상 객체를 서사 기반으로 엮어내는 하위 S-NAP의 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방법론을 구축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S-NAP의 영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행정적인 영역 구분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아카이빙을 고려한, 현실 친화적이고 영역 교차적인 항목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S-NAP를 활용하여 실제 수집을 진행하였다. 우선, 상징 영역 가운데 4개 세부 주제 영역을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9년 수

집 사업을 수행하였다. 수집사업 실행 결과를 통해(안드리, 송영랑 2020) 수집 실행지침으로서 S-NAP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 기록 중심의 수집이 아닌 다양한 시민 기록을 발굴함으로써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수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인류학적인 현장성을 살리면서, 현장에서 구술 채록이나 사진 촬영,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그 시도에 있어서도 혁신적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개발 사례 예시를 제공하여 실제 구현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제 영역 중심의 수집 정책이 갖는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주제 영역의 설계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물론 이 추상성과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수집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이슈들을 다시 수집 실행지침으로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추상성과 구체성의 보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에서의 실행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서사 기반 아카이빙 방법론은 기능 출처 중심의 기록 수집 결과가 보여주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기록 수집을 탈피하여, 서사 중심의 유기적 맥락 관계 속에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기록 집합을 구성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 고민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학계에 공유함으로써 기록화 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연구되고 더 나은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서울기록원. 201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 보고서, 1-319.
- 서울기록원. 201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 보고서 : 첨부자료집 1, 1-655.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8-182.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36, 233-269.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권 1호, 1-47.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안드리, 송영량. 2020.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연구 - 서울기록원의 수집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227-251.
- 이경래. 2019. 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 '시민참여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0, 49-88.
- 이승억. 2014.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 The National Archives,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by number,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selection-and-transfer/selecting-records/osp-number/>
- The National Archives,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by subject,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selection-and-transfer/selecting-records/osp-subject/>